

중증환자 이송 안전망, 전남광주까지 넓어진다

-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가 선정 -
- 의사간호사 동승해 병원 간 안전한 이송 실현... 2027년 상반기 본격 가동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7일(수)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대학교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와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 경기도(한림대 성심병원)가 첫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628명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을 포함한 「생명망 하나로(응급환자 이송지연 ZERO)」를 통합 100일 실행계획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전남대학교병원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은 전담구급차 특수제작과 의료장비 설치, 탑승 의료진 교육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통해 중증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치료 결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효과를 평가해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044-202-2520)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2-2525)



- (배치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 (차량·장비)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목표체온조절장치(TTM),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환자 이송에 적합한 특수 의료장비 탑재가 가능한 중환자 전담구급차 1대 운용



- 미국 구급차 기준 Type III의 특수구급차 (일반 구급차의 1.5배 크기, 공간이 넓어 중환자 의료장비 탑재 가능)
- * 왼쪽: 중증응급환자 전담구급차, 오른쪽: 일반구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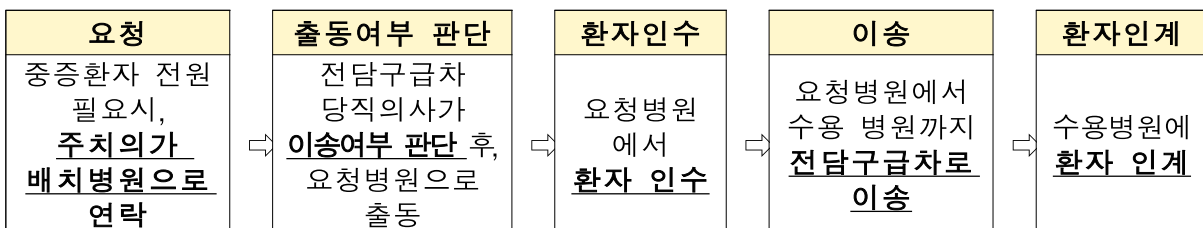
- (인력) 총 5개조 운영

* 각 조는 의사 1인,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

- (대상) 중증환자로 전원 시 전문 모니터링·처치 필요 환자

*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내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재실환자

- 운영체계



< 현행 구급차와 MICU 비교 >

구분	현행 구급차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차량	■ 스타리아, 쉐라티 등	■ Iveco New daily, Benz Splinter 등
이송 거리	■ 장거리 이송 곤란	■ 대용량 산소공급장치 등 확보하여 장거리 이동 가능
의료진 탑승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의사탑승 의무 없음	■ 전문의 및 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의료장비	■ 응급환자 처치 가능한 최소 기준	■ 중환자실(ICU) 동일장비 탑재